

공동체 소식



한가위

계절의 변화를 섭리하시는 하느님,
 해와 비와 바람을 다스리시어 저희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시니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께 오롯한 감사를 드리고
 조상을 공경하며 가족과 이웃과 화목하여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추석 합동 위령 미사 안내

- 9월 23일 주일 (연중 제25주일) 미사는 한가위 미사로 봉헌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비에 감사드리며, 조상들을 통하여 베풀어주시는 은총을 되새기고, 세상을 떠난 조상들의 영혼이 평화와 안식의 은총을 얻도록 기원하는 '추석 합동 위령 미사'를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를 시작하며 분향식이 있습니다. 분향시 미사지향을 낭독하여 드립니다.

주일학교 및 유아 자리 안내

- 성당 뒤 5줄은 주일학교 학생과 유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다소 소란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과 유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임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 기쁜 마음으로 부임을 환영해 주신 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부족하나마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교우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당 평일미사 안내

-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 평일 미사는 모두 본당 Stone Chapel 에서 있습니다.

주일미사 참례와 교무금 납부는 신앙생활의 의무입니다.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s Call to Share' 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 (<https://www.calltoshare.org/>)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금 주	436	340	174	416
차 주	286	211	164	283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종복사
금 주	정예찬 미카엘	김정훈 로베르토
차 주	고평원 프란치스코	김지안 요한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주연 세실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명희 리드비나
차 주	김명은 안젤라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애찬 봉사자

금 주	행사 2조
차 주	최은미, 장보혜, 조경희

헌금 봉사자

금 주	강영진 라파엘, 조진환 베드로
차 주	김대연 요셉, 홍순익 마르티노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9/16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 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섭리하시고 수확의 기쁨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웃과 서로 나누며 살아온 조상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본받도록 합시다.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나눔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주님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그림 묵상

각자의 십자가

십자가의 고통이 사랑으로 변하는, 마치 연금술과 같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면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합니다. 아픔은 영혼의 힘입니다. 천상으로 오르기 위해 아픔의 계단을 밟고, 겸손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제 1 독서: 요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2,22-24.26 그리고 <타작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리라.>



-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 2 독서: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14,13-16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리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15-21 <사람의 생명은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생명의 말씀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학교 시절 할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내가,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들, 그리고 친척들 모두 왜 웅기 공장을 하거나 웅기 가게를 하세요?” 할아버지는 잠깐 나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천주교를 믿으면서 그렇게 되었던다. 나의 할아버지는 지방에서 작은 벼슬을 하고 계셨단다. 그 할아버지의 선조들 중에는 아주 높은 직책에 오른 분들도 있었단다. 그분들은 높은 직책에 있었지만 아주 가난하게 사셨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많이 받았단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천주교를 믿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사형을 당했단다. 묘지도 어딘지 모른 채 묻히게 되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서 나머지 가족과 친척들은 모두 깊은 산속으로 몰래 숨어들어가 교우촌을 이루어 웅기를 구워서 입에 풀칠을 했단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친척 중에는 웅기 공장과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단다.”

나는 그때 그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할아버지의 표정이 몹시 슬퍼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엔 웅기 가게를 하는 부모님이 몹시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친구들을 우리 집에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우리 집안이 신앙을 위해 죽은 순교자 집안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망하고 가족들이 흩어졌어도 그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자랑스럽고 믿음의 정신이 내 안에도 흐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교회는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정하고, 오늘 특별히 성 안드레아 김대건과 바오로 정하상과 동료 순교자 대축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매일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어려움과 희생을 감수하라는 뜻입니다. 순교자들은 믿음을 위해 하나뿐인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증거한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보여 주신 순교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교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신앙의 힘,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요 결단입니다. 근본적으로 지금까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끔 이기심에 빠져 자기 자신만을 주장하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경하는 순교 성인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삶을 본받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한국의 성인성녀들이여! 우리를 위해 빌어주소서!”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中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루카 9,23)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세 가지 조건은 명료하면서도 단호합니다. “버리고” “지고” “따라야” 하는 선택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 “버리고”는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다’, 곧 자기부인, 자기거절의 속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지요. 여기서 자신의 뜻이란 거짓자아, 원래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말합니다.

... “지고”는 ‘등에 지다’ ‘세우다’ ‘얼다’의 의미입니다. 특히 골고타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세우다’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십자가의) 생명과 죽음의 선택이 인간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 자체보다 그것을 짊어질 사람과의 관계...하느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만 자신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야”, 자신의 삶을 통해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 계심을,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그분과 하나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38-39)

- 김혜숙(막시마) 선교사

말씀의 이삭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살다 보면 자신이 참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스스로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의구심 속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아주 작은 개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인간의 거친 발들이 정신없이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밟혀 죽을 위기였습니다. 저는 젖 먹던 힘을 다해 커다란 벽장 밑 공간으로 숨어들어 갔습니다. 개미라는 존재의 무능함에 깊은 분노가 느껴졌으나, 달리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벽장 밑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한숨 돌리고 나서 둘러보니, 이 바닥은 바깥보다 훨씬 시원한 데다가 꽤 볼거리가 있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서 떨어져 어찌어찌 벽장 아래로 흘러들어 온 것 같은 잡동사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쓰고는 있지만 꽤 값나가 보이는 파란 알보석 반지, 한때는 반짝반짝 빛났을 법한 목걸이 펜던트, 잿빛 실을 매단 바늘, 바위처럼 생긴 흰 바둑알도 보였습니다. 저는 어슬렁어슬렁 그 바닥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글씨들이 적힌 커다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 그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가까이 가 보니 종이도 글자들도 작은 개미인 제 눈에는 너무 커,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글자들이 하나하나 종잇장에서

일어 나더니,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문득 그게 아름다운 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시가 날아가는 광경을 처음 보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곳은 더 이상 벽장 밑이 아니었습니다. 탁 트인 파란 하늘이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뒤, 무심코 방안을 둘러보니 벽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그 밑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납작 엎드려 벽장 아래 바닥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러자 언제 들어간 건지 알 수 없는 만 원짜리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래 못 본 친구를 만나기라도 한 듯 반가웠습니다. 손을 뻗어 먼지를 뒤집어 쓴 그 배춧잎과 악수하니 빙긋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의 꿈을 통해 마음속의 지혜가 들려준 이야기.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진 사람인들 고민이 없겠습니까. 벽장 밑 개미로 사는 데에도 그만한 재미는 있는 법. 주위를 둘러보면 감사할 일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언지도 모른 채 갖지 못한 것만 탐하며 불행해져 갑니다. 날마다 한 손가락에 한 개씩, 감사할 일을 열 개만 꼽으며 살아간다면 늘 행복할 거라던 누군가의 말이 떠오르네요.

세상을 향해 불평을 터뜨리기 전에 제 마음, 그리고 제 방이나 구석구석 쓸고 닦고 비워야겠습니다.

- 성기영 아가빠 | 작가, 작곡가 -

그림으로 보는 복음 묵상

자리



자매님! 남는 자리가 있습니다.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신부님.

저 자리, 제 자리가 아닙니다.

저보다 자리가 더 필요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마르 9,37)

-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